

[독자코멘터리] 일반인 사례도 보여줬으면

2009.07.29

필자는 20년 전 쿠웨이트, 미국, 태국 등 낯선 곳에서 근무해왔다. 중동 땅 뜨거운 땀별 아래에서 힘겨운 하루 생활을 마치고 나면 홀로 갖는 시간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국내외 서적을 막론하고 독서를 즐기곤 했다. 때로는 등산이나, 산책으로 사색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일주일 동안 미국 서부에서 싱크위크(Think Week)를 보냈다. 일하는 직장을 잠시 벗어나 혼자만의 생각을 충분히 갖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창의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다양한 CEO들의 생각주간 사례가 실려 재미 있는 읽을거리가 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생각주간을 통해 사고를 전환했다는 얘기도 관심을 끌었다. 뒷부분에 생각주간을 여가와 혼돈하지 않고 창조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잘 정리된 듯싶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례들이 대부분 CEO들에 국한됐다는 점이다. 비록 CEO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생각주간을 활용하지만, 일반 직장인들도 이직·창업 등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다. 이때 생각주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팁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례들도 함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규문 밀레코리아 사장 kmahn@miele.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16호(09.07.29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